

I '민선 7기' 출범

“군민 빛 값는 품앗이 군수 될 것”

김철우 보성군수... 복지사회·문화관광 등 5대 과제 제시

김철우 보성군수(사진)가 최근 취임사에서 “군민에게 진 빚을 보성을 위해 갚는 품앗이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 군수의 취임식은 별도의 공식행사 없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및 직원들과 함께 월례조회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철우 군수는 지난 1일 태풍 뿌리베론의 북상과 전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난재해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당초 계획된 취임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김 군수는 더 나은 군민의 삶, 희망의 새보성 만들기 등을 약속했다.

김우철 군수는 “내 고향 보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군민 한분 한분께 빛을 주고 그 소중한 빛을 보성군을 위해 크게



미래를 선도하는 보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운영방침을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으로 정하고,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고소득 친환경 농림어업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등 5대 과제에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군정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일자리 창출로 인구 늘리겠다”

이승욱 강진군수...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 의지

이승욱 강진군수(사진)는 4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인구를 유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날로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취약한 농어촌이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강진 산업단지 내 분양 완료해 새로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고용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 농업과 농수산물 가공·유통·직거래 사업,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한다.

이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강진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예술 자원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해 멋있고 품격있는 강진을 만들어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의 맛집 육성, 영랑생가에서 사의재 구간을 강진의 몽마르뜨로 조성, 게스트하우스와 유스호스텔 등 중저가 숙박시설 유치 등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고용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 농업과 농수산물 가공·유통·직거래 사업,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한다.

이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강진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예술 자원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해 멋있고 품격있는 강진을 만들어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의 맛집 육성, 영랑생가에서 사의재 구간을 강진의 몽마르뜨로 조성, 게스트하우스와 유스호스텔 등 중저가 숙박시설 유치 등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군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마을회관을 복합 문화공간이자 기초 복지시설로 활용해 상생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다.

군내버스 요금을 1천원 단일요금으로 인하여 군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과 주거환경 개선, 방범 사각지대 개선, 상대적 낙후 지역인 강진을 동문안 일대 중점 개발 등도 약속했다.

이 군수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가 작은 목소리로 귀담아들으며 대화와 소통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가겠다”고 소통행정을 강조했다. /강진=전원빈 기자

광양, 청년 일자리 창출 탄력 받는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증마도서관 유희 부지 청년 창의 공간 조성

광양시가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창의 공간’ 조성 본격 나간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 창의 공간 조성 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실정에 맞게 발굴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700㎡ 규모로 광양시립증마도서관(청소년 문화센터)의 유희 부지에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한다.

청년 창의 공간에는 청년 공유공간과 청년카페, 청년활동지원 센터, 디지털 대장간 등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시는 (재)전남정보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청년투어 팩토리, 아트 스킨, 아트 팩토리, 리스타트 레지던시 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청년 창의 공간 조성을 통해 그동안 청년들이 바라던 청년 거점·전용공간이 마련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에 들어서는 ‘청년 창의 공간’을 창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며, “창업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권취재본부=오승택 기자



관광객 유혹하는 화려한 원추리꽃 4일 구례군 심전강 서시천변에 100만 송이 원추리꽃이 군락을 이루며 주민과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지리산둘레길 구간인 용방면 지용관부터 서시천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까지 약 4km 구간에 대표적인 여름철 야생화인 원추리꽃이 활짝 피어 해마다 군민은 물론 사진작가 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구례군 제공

강진 ‘관광정책역량’ 1등급

문체부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발표

강진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관광발전지수의 하나인 ‘관광정책역량’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발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처음 실시한 이 분석은 지역의 관광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관광발전

지수 지표체계’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관광 발전 수준을 분석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지역관광 자가진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2017년도 지역관광발전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전남도, 제주도 등 4개 시도가 1등급 지역으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강릉시, 거제시, 경주시, 강원 고성군, 단양군, 속초시, 순천시, 울릉군, 평창군 등 9개 시·군

이 관광발전 1등급 지역으로 분석됐다.

강진군은 종합지수 1등급에는 들지 못했으나 세부지표인 ‘관광정책역량지수’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내에서는 강진군을 포함해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진도군이 1등급을 받았다.

21개 소분류 지표 중 최중지수와 등급에 영향을 주는 상승요인은 관광시설, 홍보정책, 정책인력 등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요인은 관광만족도, 매체홍보, 관광교육 등이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문체부의 지역관광발전지수 발표를 통해 강진군이 다시 한 번 관광발전으로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면서 “이번 성과를 계기로 강진의 관광정책을 더욱 다듬어 실제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